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Parental Sociability, Parenting Behaviors, and Shyness in Children

정 승 원*

Chung, Seung Won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e relation of parental sociability and parenting behaviors (such as warmth and control) to shyness in children was examined. The subjects were 280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139 boys and 141 girls). The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showed that (1) maternal sociability was related to shyness in children: the more sociable the mothers, the less shy their children, and (2) paternal and maternal warmth were related to shyness in children: the warmer the fathers and mothers, the less shy their childre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행동과 대조되는 개념인 아동의 수줍음은 그 소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여러 사회적 행동들과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수줍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또래로부터 덜 수용될 뿐만

아니라 고립되기가 쉬어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도현심, 1996). 아동기의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훗날의 부정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들(Kagan, Reznick, & Snidman, 1990; Kupersmidt, Coie, & Dodge, 1990)에 근거해 볼 때, 수줍음의 부정적인 특성은 보다 긍정적인 훗날의 발달을 위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그러나 실제로 아동의 수줍음이라는 주제가 연구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 Kagan 등이 종단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부터이다(Garcia-Coll, Kagan, & Reznick, 1984; Kagan, Reznick, Snidman, Gibson, & Johnson, 1988). 그들은 '수줍음'이라는 용어 대신에 '행동 억제(inhibition)'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수줍음을 생물학적 성향(biological disposition)과 관련시켜 연구하였다(Engfer, 1993; Garcia-Coll et al., 1984;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Kagan Snidman, & Arcus, 1993). 즉 수줍음은 생의 초기에 시작되고 다른 아동기 특성들에 비해 안정성을 보이므로, 유전 혹은 출생전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질적 특성이라고 간주되었다(Buss & Plomin, 1984; Engfer, 1993).

1980년대 후반부터, 수줍음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생물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주로 수줍은 아동들의 또래수용성이나 인기도에 초점을 두어, 수줍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또래들로부터 더 많이 거부되거나 무시된다고 보고하였다(Asendorpf, 1990; French, 1988).

이와 같이, 수줍음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줍음을 나타내는 아동 자체의 특성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아동의 수줍음을 부모의 특성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부모관련변인과의 관련성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부모관련변인들로는 주로 부모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수줍음 및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련성은 국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치원 아동들의 수줍음을 살펴

본 도현심·박성연(1992)은 부모의 수줍음은 아동의 수줍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경우와 다르게 특히 어머니의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수줍음에 있어서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의 하나인 사회성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다른 연령층의 아동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결과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아동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그들은 환경적 경험 역시 아동의 수줍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아동의 수줍음을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불안정감(Fox & Calkins, 1993; Mills & Rubin, 1993)과 관련시켜 살펴 보았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시킨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히 영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요한 양육행동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어서 부모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억제된 행동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면(Engfer, 1993), 이와 대조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Arcus et al., 1992). 이처럼 낮은 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민감성과 수줍음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 외에, 부모의 다른 양육행동 요인을 수줍음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같은 양육행동 요인을 수줍음과 관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수줍음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특성과 역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도현심, 1996)에

근거할 때, 긍정적 차원의 양육행동요인과 수줍음 간의 관계는 부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앞서 인용하였듯이, 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살펴본 도현심·박성연(1992)의 연구를 선두로 하여, 최근 들어 아동의 수줍음을 사회적 특성과 관련시킨 몇 편의 연구가 발표된 정도이다(강소연, 1994; 도현심, 1996; 정지선, 1992).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수줍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대상아동의 연령 및 주제를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은 아동의 수줍음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은 아동의 수줍음에 어떠한 상대적 영향력을 가지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수줍음의 개념

수줍음은 애착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보호적 기능을 갖거나(Stevenson-Hinde, 1993, Engfer, 1993에서 재인용)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Broberg, 1993; Engfer, 1993; Mills & Rubin, 1993),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으로서 정의된다

(Pilkonis, 1977a; 1977b). 즉, 수줍음을 사회적 행동특성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도현심, 1996; Asendorpf, 1990; French, 1988), 수줍음은 일종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인관계적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수줍음은 연구자들에 따라 용어 사용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 Garcia-Coll, Kagan과 Reznick(1984)은 수줍음이라는 용어 대신에 억제된 행동(inhibited behavi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억제된 행동은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물러나 자신이 하던 활동을 중단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비억제된 행동(uninhibited behavior)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Clarke-Stewart, Umeh, Snow, & Pederson, 1980; Thompson & Lamb, 1982)은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성(socia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연구자들은 학령전 아동들과 학령기 아동들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행동들에 대해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Gersten, Langner, Eisenberg, Simcha-Fagan, & McCarthy, 1976; Mills & Rubin, 1993; Younger, Gentile, & Burgess, 1993), 또는 수줍음(Asendorpf, 1989; Daniels & Plomin, 1985; Engfer, 199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다 최근에 Engfer(1993)는 수줍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낮가림,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심으로서, 이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거나 피하고, 심한 경우 울음을 터뜨리는 행동이다(Mussen, Conger, & Kagan, 1979). 낮가림은 아동에 따라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아동기까지 지속되어지기도 한다. 둘째, 이러한

낮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은 낯선 또래들이나 어른들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고 안정적인 패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이러한 공포심은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사회적 능력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Asendorpf, 1993). 수줍음의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 위축으로서, 어떤 아동들은 친숙한 상황에서도 또래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신의 또래 친구들로부터 거부되어질 수도 있다. Rubin(1993)과 Younger와 동료들(1993)은 그들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낮은 자신감과 슬픔, 외로움, 그리고 우울 증세와 같은 면으로 발전한 심각한 결과를 그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수줍음, 행동억제, 또는 사회적 위축이란 경우에 따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로서, 우려(apprehension), 또는 위축(withdrawal), 낯선 사람이나 물건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오랜 시간, 어머니에게 매달림, 울음, 흐느낌이나 불안함, 고통스러운 얼굴표정이나 발성, 그리고 놀이의 억제와 같은 행동양상들로 표현된다(Garcia-Coll et al., 1984).

2.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수줍음

Thomas, Chess와 동료들이 뉴욕 중단연구(Thomas, Chess, Birch, Herzig, & Korn, 1963)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연구자들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기질에 있어서의 개인차로 설명하며,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성향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행동은 부모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며(Daniels, & Plomin, 1985; Plomin & Daniels, 1986), 시간을 두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왔다(Asendorpf, 1990,

1993; Caspi, Elder, & Bem, 1988; Hinde, Stevenson-Hinde & Tamplin, 1985).

친모와 입양모를 대상으로 한 수줍음 연구(Daniels & Plomin, 1985)에서, 아동의 수줍음은 입양모보다는 친모의 수줍음 및 낮은 사회성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수줍은 어머니는 수줍은 자녀를, 사교적인 어머니는 사교적인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수줍은 어머니는 수줍음이라는 성격특성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수줍은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사교적인 어머니는 사교적인 자녀를 둘 수가 있다. 도현심·박성연(199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아버지의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은 관련이 없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이 아동의 수줍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Rubin과 동료들(Rubin & Mills, 1990)에 의해 제안된 수줍음의 발달경로를 보면 아동의 정서적 동요(excitability)와 관련하여 불안-저항적 애착관계와 또래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기본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둔감한 양육행동을 들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East(1991)는 비지지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근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여아는 그렇지 않은 여아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정성과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Engfer(1993)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애착관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둔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Insensitive mothering)과 불안-저항적인 애착(Insecure-resistant attachment), 그리고 수줍음 혹은 위축 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밝혀, 둔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6세 여아의 수줍음/위축 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6세 남아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Engfer는 어머니의 둔감성외에도 우울증, 신경질적임(nervousness), 성마름(irritability), 신경과민(neuroticism) 등과 같은 성격 특성과 아동의 수줍음 혹은 위축 행동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수줍음의 발달 경로를 보고하고 있다.

많지 않은 연구들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적, 애정적, 지지적, 수용적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아동이 부모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행동 유형을 습득한다는 이전 연구결과들에 덧붙여, 부모-자녀관계의 보다 총체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예:온정성, 친밀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강남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각각 6학급씩 총 12학급의 아동들 280명(남아:139명; 여아:141명)과 그들의 부모들이다. 수줍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령전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그들로부터 밝혀진 결과들이 학령기의 아동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이 연령층의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의 어머니들 중 취업율 하고 있는 경우는 79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였다. 가족의 월 수입은 199만원 이하가 32.8%, 200~299만원이 42.4%,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 24.4%이었

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부모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로 구분된다. 부모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는 각각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각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 부모용 질문지

부모용 질문지는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다. 부모의 사회성은 Cheek과 Buss(1981)의 사회성 문항들을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낮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 '친구가 많은 편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7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박성연·이숙(1990)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온정성과 통제성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아버지용의 경우 각각 7문항과 9문항이, 어머니용의 경우 각각 7문항과 13문항이 포함되었다. 온정성 요인 및 통제성 요인의 문항들에는 각각 '자녀에게 칭찬을 자주 해준다.', '자녀를 자주 껴안고 다독겨려 준다.', '자녀와 무슨 이야기든지 허물없이 나눈다.' 등과 '자녀가 하려는 행동을 제한할 때가 많다.', '자녀가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할 때가 많다.',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요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통한 요인타당도를 살펴보면, 아

버지의 경우 온정성과 통제성은 각각 .60($p < .001$), .72($p < .001$)이었으며,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은 각각 .80($p < .001$), .53($p < .001$)으로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Cronbach's α 에 의한 각 질문지의 신뢰도는 .66~.84이었다.

2) 아동용 질문지

아동의 수줍음은 도현심(1996)을 기초로 하여 몇몇 문항들을 보충·재 작성하여 총 2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서, ‘수줍어하는 편이다.’ ‘처음 보는 아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다.’ ‘낮선 아이에게 쉽게 말을 건넨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을 제외시키며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1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총 19문항은 $\alpha = .79$ 를 나타내었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안은 문항 수		
척 도	아버지용	어머니용	아동용
부모의 사회성	.82(7)	.66(7)	-
부모의 양육행동			
온정성	.82(7)	.75(7)	-
통제성	.71(9)	.84(13)	-
아동의 수줍음	-	-	.79(19)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사회인구학적 조건이 비슷한 12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완성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78명의 아동들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신뢰도를 산출한 후 본 조

사를 위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교사들의 도움으로 교실에서 총 338부의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모두 회수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아동들에 의해 부모들에게 전달된 후 응답되었으며, 총 290부가 회수되었다.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부모용과 아동용을 모두 포함하는 총 280부의 질문지가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인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수줍음을 예측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분석에 앞서 수줍음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수줍음은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다($t = 1.91, df = 278, p > .05$). 따라서 남아와 여아 전체를 합하여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살

해보면, 아버지의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r = -.02, p > .05$), 어머니의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14, p < .05$)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온정성과 어머니의

온정성은 수줍음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 = -.16, p < .01$; $r = -.13, p < .05$), 아버지의 통제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3, p < .05$).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정적일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덜 통제적일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통제성은 수줍음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2, p > .05$).

<표 2>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아버지의 사회성							
2. 아버지의 온정성	.34***						
3. 아버지의 통제성	-.05	-.13*					
4. 어머니의 사회성	.02	.08	-.02				
5. 어머니의 온정성	.16**	.34***	-.20**	.14*			
6. 어머니의 통제성	-.03	.03	.11	-.03	-.08		
7. 아동의 수줍음	-.02	-.16**	.13*	-.14*	-.13*	-.02	
평균	2.67	2.89	2.38	2.53	2.92	2.54	2.77
표준편차	.45	.47	.54	.38	.38	.27	.49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의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수줍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만큼 높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회성과 온정성 및 통제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온정성만이 아동의 수줍음을 유의하게 예측

해 주었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성과 온정성 및 통제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어머니의 사회성은 아동의 수줍음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미약하게(marginally) 영향력을 나타내어($p = .053$) 유의한 예측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표 3> 참고).

그 외,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아버지 변인들과 어머니 변인들이 아동의 수줍음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4> 참고). 독립변인으로 전체 변인들을

〈표 3〉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B	β	독립변수	B	β
아버지			어머니		
사회성	.04	.04	사회성	-.17	-.13*
온정성	-.17	-.16*	온정성	-.15	-.12*
통제성	.11	.12	통제성	-.06	-.03
<i>F</i>	3.97**		<i>F</i>	3.28*	
<i>R</i> ²	.04		<i>R</i> ²	.03	

+ $p < .10$ * $p < .05$ ** $p < .01$

〈표 4〉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B	β
아버지		
사회성	.04	.04
온정성	-.14	-.13*
통제성	.10	.11
어머니		
사회성	-.16	-.12*
온정성	-.07	-.12
통제성	-.06	-.04
<i>F</i>	2.30**	
<i>R</i> ²	.06	

* $p < .05$ ** $p < .01$

모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온정성과 어머니의 사회성만이 아동의 수줍음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인들에 포함되었으며, 두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beta = -.16, p < .05$; 어머니: $\beta = -.13, p < .05$). 반면에, 아버지의 경우 사회성과 통제성이, 어머니의 경우 온정성과 통제성이 아동의 수줍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어머니가 사교적일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덜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사회성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수줍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성은 수줍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아버지의 사회성은 그러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현심, 박성연(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온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모가 온정적일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의 부모는 온정적이며 지원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Baumrind, 1967; Maccoby & Martin, 1983)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 관계없이 온정성 자체가 아동의 수줍음과 가지는 관계는 부모-

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신뢰와 애정이 가족의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안정적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애착문헌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가 있다. 애착 이론가들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이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는 데 지지적 기반을 제공해 주지 못할 경우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소심하며 불안해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감소된다(Sroufe, 1983). 한편 통제성은 아버지의 경우에만 아동의 수줍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아동은 수줍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이 통제적이며 독재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Baumrind, 1967; Hetherington & Martin, 1986)과 일치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자녀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많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최경순, 199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 요인들 모두가 아동의 수줍음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경우는 온정성만이, 어머니의 경우는 사회성과 미약한 수준이나 온정성도 아동의 수줍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쪽 부모와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온정성과 어머니의 사회성만이 서로 유사한 설명력을 가지고 아동의 수줍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경우는 환경적 요인인 온정성을, 어머니의 경우는 성격특성인 사회성을 들

수 있다. 아버지 온정성의 영향력은 아동발달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들(Belsky, Fish, & Isabella, 1991; East, 1991; Engfer, 1993;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을 통해 그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성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볼 때, 학령전 아동들의 수줍음을 연구한 도현심·박성연(1992)의 결과가 아동후기에 속하는 본 연구대상에 의해서도 지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인 특성이 그 자체로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aspi, Elder, & Bem, 1987; 1988)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성이 높은 어머니는 사회성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행동에 있어서 자녀에게 활동성이나 사고성을 보다 많이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의 기회를 다양하고 빈번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수줍음을 덜 나타내게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횡단적인 자료를 통해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쳤다. 아동의 수줍음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보다 명확한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욱이 양육행동의 구조에 있어서 Park과 동료들(1997)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는 자녀의 수줍음에 대해 실제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보다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줍음을 예측하는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부모의 성격특성 및 양육행동 요인과 관련시킨 본 연구는 어머니 사회성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자녀간의 관계와 어머니-자녀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특히 아버지-자녀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 연령의 확장을 통해 아동기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만하다. 또한 부모의 신념체계를 비롯한 부모관련변인들을 다양화함으로써, 아동의 수줍음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소연(1994). 아동의 수줍음과 놀이실에서의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박성연(1992).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325-338.
-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정지선(1992). 수줍음의 재인식과 집단 주장훈련이 아동의 주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 (1992).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al profiles. Paper presented in a Symposium o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 Asendorpf, J. B. (1989). Shyness as a final common pathway for two different kinds of 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481-492.
- Asendorpf, J. B. (1990).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Evidence for situational specificity and a two-factor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21-730.
- Asendorpf, J. B. (1993). Beyond temperament: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265-29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lsky, J., Fish, M., & Isabella, R.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lack, B., & Hazen, N. L. (1990). Social status and patterns of communication

- in acquainted and unacquain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79-387.
- Broberg, A. G. (1993). Inhibition and children's experiences of out-of-home care. In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151-176).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Erlbaum.
- Caspi, A., Elder, G. H., & Bem, D. J.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08-313.
- Caspi, A., Elder, G. H., & Bem, D. J.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4-831.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larke-Stewart, K. A., Umeh, B. J., Snow, M. E., & Pederson, J. A. (1980). Development and prediction of children's sociability from 1 to 2½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90-302.
- Daniels, D., & Plomin, R. (1985).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shy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8-121.
- East, P. (1991).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withdrawn, aggressive, and sociable children:Child and parent perspec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37, 425-443.
- Engfer, A. (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49-80).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ox, N. A., & Calkins, S. D. (1993). Pathways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Interactions among temperament, attachment, and regulation.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81-100).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rench, D. C. (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Garcia-Coll, C., Kagan, J., & Reznick, J. S. (1984).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005-1019.
- Gersten, J. C., Langner, T. S., Eisenberg, J. G., Simcha-Fagan, O., & McCarthy, E. D. (1976). Stability and change in types of behavioral disturbance of

-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 111-127.
- Hinde, R. A., Stevenson-Hinde, J., & Tamplin, A. (1985). Characteristics of three- to four-year-olds assessed at home and their interactions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30-140.
- Kagan, J., Reznick, J. S., Clarke, D., Snidman, N., & Garcia-Coll, C.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O.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2). New York:Wiley.
- Maccoby, E. E., & Masters, J. C. (1970). Attachment and dependency.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Third edition(Vol. II, pp. 73-157). New York:Wiley.
- Mills, R. S., & Rubin, K. H. (1993). Socialization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withdrawal.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117-148).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 ed., New York:Harper & Row.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ark, Seong-Yeon,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ilkonis, P. (1977a).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hyness. *Journal of Personality*, 45, 596-611.
- Pilkonis, P. (1977b). Shyness, public and private,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45, 585-595.
- Plomin, R., & Daniels, D. (1986). Genetics

- and shyness. In W. H. Jones, J. M. Cheek, & S. R. Briggs(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pp. 63-80). New York:Plenum.
- Rubin, K. H. (1993).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withdrawal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291-314).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bin, K. H., & Asendorpf, J. B. (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bin, K. H., & Mills, R. S. L.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 916-924.
- Rubin, K. H., & Mills, R. S. L.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Schaefer, E. S. (1961).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 345-346.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omas, A., Chess, S., Birch, H. G., Hertzog, M. E., & Korn, S. (1963). *Behavioral individuality in early childhood*. New York: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 Lamb, M. E. (1982). Stranger sociability and its relationships to temperament and social experience during the second yea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277-287.
- Younger, A., Gentile, C., & Burgess, K.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withdrawal:changes across age.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215-235).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